

2016. 4.

2016년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국외연수(중국) 결과보고서



청도시



위해시



목포시의회

연수개요 및 주요일정

□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16. 4 25(월) ~ 4. 29(금) / 4박 5일간
- 연수목적 : 국제화시대를 맞아 중국에서 위생과 환경, 산림녹화 등에 있어 가장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선정되었던 두 도시(청도시, 위해시)를 방문하여 그곳의 도시환경을 직접보고 개선방향을 찾아 의정활동에 활용코자 함.
- 연수장소 : 중국
- 연수참여 : 10명 (시의원 6, 의회사무국 3, 목포시청 1)

소 속	직위(급)	성 명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정 영 수
	도시건설부위원장	임 태 성
	도시건설위원	강 찬 배
	도시건설위원	이 기 정
	도시건설위원	김 귀 선
	도시건설위원	최 석 호
의회사무국	7급	방 경 만
	7급	박 순 행
	7급	홍 은 혜
목포시청	도시계획계장	오 호 영

□ 주요일정

일 자	행선지	시간	주 요 일 정	비고
4.25(월) 1일차	인천공항	06:00	인천공항 집결 및 출국수속	
	청도	09:10	〈인천공항 → 청도공항 출발〉	
		09:30	〈청도 도착 / 가이드 미팅 후〉	
		13:00	잔교, 팔대관, 피차이웬 거리 등 시찰	
		17:00	호텔이동 및 투숙	
4.26(화) 2일차	청도		○ 조식 후 청도 시청 이동	
		10:00	○ 청도 시청 공식방문 - 도시계획관 방문	
		13:00	○ 54광장, 올림픽요트경기장, 맥주박물관 등 시찰	
		18:00	호텔이동 및 투숙	
4.27(수) 3일차	청도 ~ 위해	오전	○ 조식 후 노산북구수 케이블카 시설 견학	
		오후	○ 위해이동(약 3시간 30분 소요) ○ 석식 후 투숙	
4.28(목) 4일차	위해	오전	○ 위해 시청 공식방문 - 도시계획관 방문	
		오후	○ 적산법화원, 선고정, 행복문, 환취루 시찰 ○ 석식 후 투숙	
4.29(금) 5일차	위해		○ 조식 후 공항이동	
		10:10	○ 위해공항~인천공항 출발	
	인천	12:20	○ 인천공항~목포 출발	
	목포	17:50	○ 목포 도착 후 해산	

연수총평

㉠ 위원회별 주제에 맞는 연수추진으로 연수 효율성 증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중심의 연수실시로 우리시와 지리적으로 유사한 도시의 방문을 통해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자료등을 수집하고 앞으로 우리시의 도시계획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수 있도록 위원회별로 공무국외연수의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하였다.

㉡ 총평(연수소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공무 국외연수 추진에 있어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시와 여건 환경이 비슷한 곳을 방문하여 신형도시화 환경 조성의 우수사례들 수집하여 우리시 도시계획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중국이라고 하면 흔히 가지게 되는 매연이 가득하고 거리는 지저분할 거라고 생각했던 선입견과는 달리 위생과 환경, 산림녹화의 우수 도시라는 타이틀답게 두 도시의 도시전경은 방문 기간 동안 거리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거리 곳곳은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 쾌적했다.

또한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들의 노력들을 많은곳에서 볼 수 있었다. 당국에서는 대대적인 삼림조성 작업과 함께 바다와 인접하고 바람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 대체 청정에너지원으로서의 풍력발전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었다.

연수 일정중에 들른 광장, 해상공원들도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주변 경관이나 환경의 인위적인 변화를 최소화 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하여 여러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연을 느끼며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들을 보면서 주변을 생각하기 보다는 개발만을 우선시 하던 우리들에게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주변 환경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과 비교하여 주변 환경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들이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져 주민모두가 행복해 하는 목포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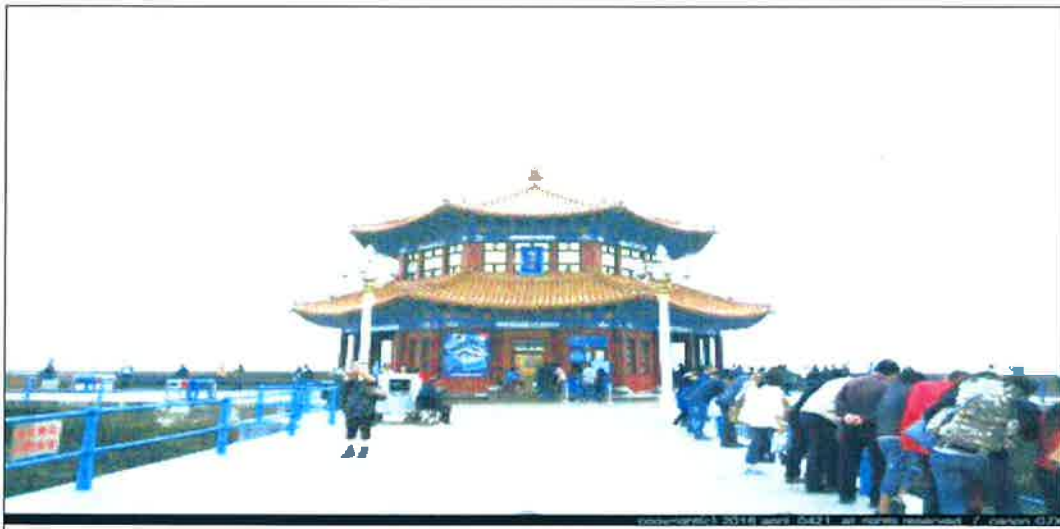
일정별 현지 시찰 보고

□ 4월 25일(목) 연수 1일차

주요일정 : 청도 도착 후 잔교 및 유럽(독일)풍 건축물 등 견학

금번 연수의 첫 방문도시인 청도는 맥주의 고향으로 산둥성 동부에 위치한 깨끗한 항구도시이다. 원래는 작은 어촌이었으나, 과거 선교사 사건을 구실로 독일이 점령한 후 근대식 항구도시와 유럽풍의 도시로 설계하여 상업의 발달과 함께 군사 요충지로 발달하게 되었다. 시내에는 지금도 유럽풍의 건축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해변쪽은 바닷물이 깨끗해 여름에는 피서객으로 붐비고, 해양성 기후라 겨울에도 기온이 따뜻하다.

이곳에서 먼저 방문하게 된 잔교는 청다오만의 상징적인 다리로 교량 전체길이는 440m로 원래 명나라때부터 배를 접안하기 위해 만든 곳 이라고 한다. 잔교를 보수하여 부두 끝에 지은 팔각정에는 기념품 파는 상점과 희귀어류 수족관이 많았다. 팔각정 2층에서 볼수 있다는 청다오 10경중 하나인 새가 날고 파도가 굽이치는 전경은 아주 장관이었다.



잔교

다음으로 간 팔대관은 녹음이 우거진 산책로와 유럽풍의 건축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 인데, 과거 칭다오에 머물던 유럽인들이 별장을 지어 머물렀으며 이후 이곳에 중국 유명인들이 머물면서 유명세를 탔다고 한다. 바다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아름다운 청도 전경을 한눈에 볼수 있었다.

산책로를 걷다가 우리시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해준 작업인부들과 시민들의 동참속에 유달산에 아름다운 둘레길을 조성할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팔대관과 주변 건물



바다 산책로

그날 일정 마지막으로 간 110년 전통의 먹자골목인 피차이웬 거리는 장작을 쪼개는 집으로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한다고 한다. 과거 독일점령을 피해 작은 골목으로 모여들었던 전통음식점들이 유명 관광지가 되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 되었다. 온갖 중국 전통음식을 파는 곳으로 곤충 등을 튀겨 파는 곳도 있다.



피차이웬 거리

□ 4월 26일(화) 연수 2일차

주요일정 : 오전-청도시청 도시계획관 방문

오후-맥주박물관, 천막성, 5·4광장

연수 2일차 일정의 시작은 청도시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관을 견학하여 국제화시대에 신형도시화 모델인 청도시의 개발과정 및 도시계획 정책에 대해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에서는 산둥반도 해양경제구발전계획을 허가하고 청도를 산둥반도 해양경제구핵심구의 주도적 도시로 확정하고 현재 4대 국제 물류무역항으로 대형 임항산업 클러스터와 임항 첨단제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국제 무역 도시로 계속 성장시키고 있는 중 이고 타 신도시와 달리 도시전체를 통일적으로 먼저 계획하고 3대 해안이 연동하고 생태중축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전개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도시를 단체식으로 발전시킨다는 도시의 공간적 발전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한다.

또 세계의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안선에 홍수방지 제방도 짓고 현대화 장비를 통해 실시간 해수상황을 감시하고 조기 경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청도 도시계획관



홍보 영상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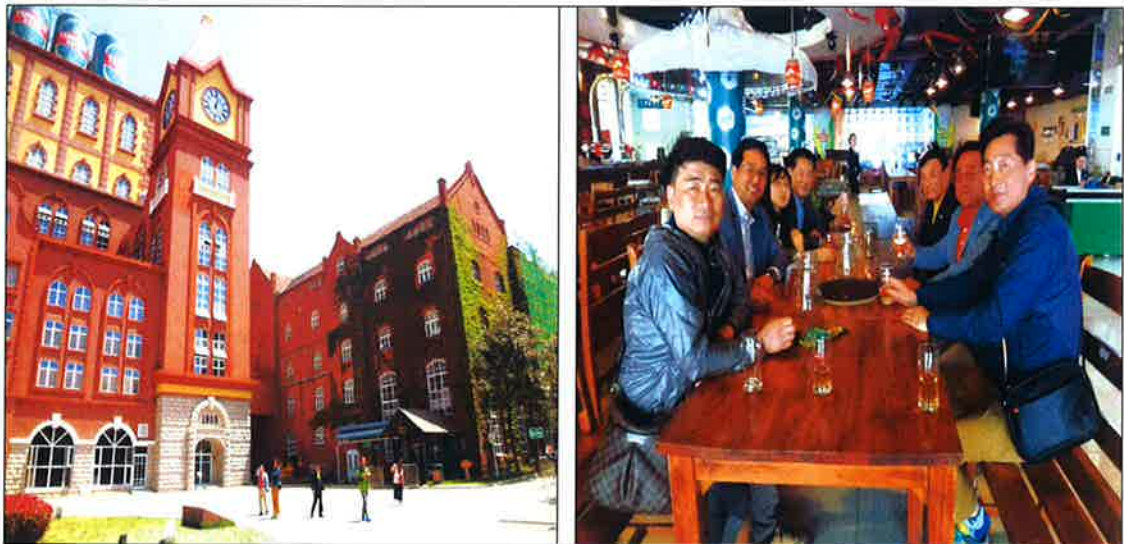
오전 기관방문을 마치고 오후에 처음으로 간 곳은 5.4광장과 올림픽 요트 경기장인데 5.4운동의 도화선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곳으로 동쪽의 바다를 중심으로 남과 북 두 부분으로 나뉘고, 중심축에는 여러 조각상과 해상분수들이 있었다. 어떤 관광지를 가더라도 큰 대륙이라 그런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관광객들이 정말 많아서 놀라웠다.

광장 옆 바다에는 올림픽 요트경기장이 있는데 둘러싸인 풍경들에 의해 경기장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우리 목포시도 요트마리나경기장이 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올수 있도록 더 활성화되어 향후 올림픽이나 수많은 경기가 그 곳에서 개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청도하면 빠질 수 없는 관광지인 청도 맥주박물관은 독일인들이 시작한 맥주공장을 박물관으로 만든 곳으로 중국의 유명한 맥주인 칭다오맥주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며, 맥주제조 과정과 각종 장비, 청도 맥주의 역사, 세계 각국의 맥주 등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청도 맥주 박물관

총길이 460m에 면적이 10여만 평방미터나 되는 쇼핑몰 칭다오 천막성이란 곳을 갔다. 그곳은 기념품 판매상들과 식당가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쇼핑을 하거나 기념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이 많았다.



천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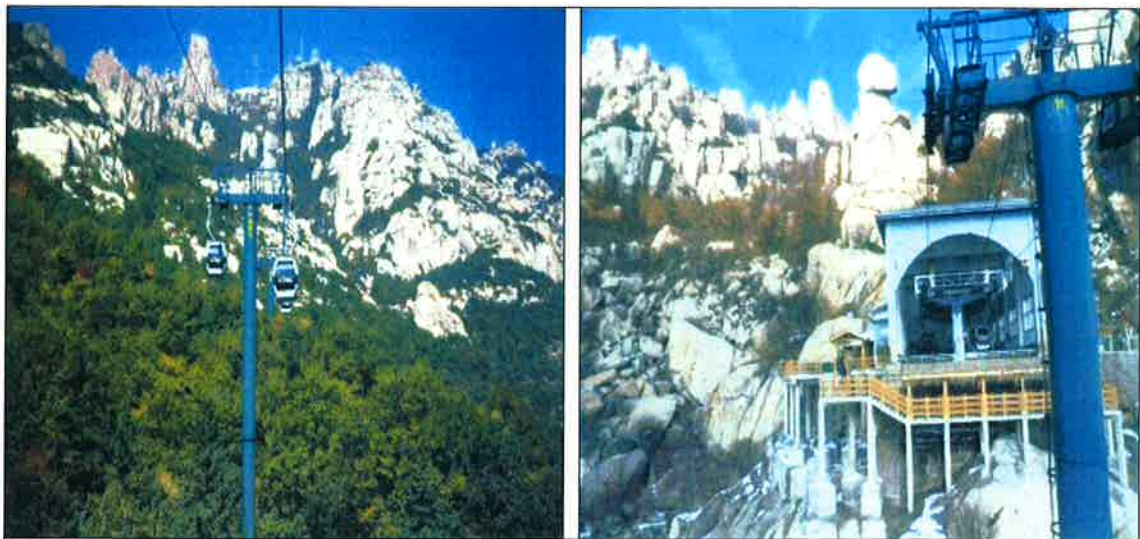
□ 4월 27일(수) 연수 3일차

주요일정 : 오전-노산북구수 케이블카 시설 견학

오후-위해이동(3시간30분 소요)

연수 3일차 일정의 시작은 우리시가 현재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하여 노산북구수 케이블카 시설을 시찰하였다, 높이 높은 노산의 풍광에 압도되어 한동안 전방에서 시선을 땔 수 없었다. 뒤에는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 그리고 바다와 바로 맞닿은 웅장한 노산, 이 둘의 조합은 참으로 놀라웠다,

우리시도 유달산에서 고하도로 이어지는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시설이 되었으면 한다.



노산 케이블카

다음 날의 일정때문에 위해로 이동하는 게 아쉬웠지만 다음에 올 때는 아침부터 제대로 노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둘러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4월 28일(목) 연수 4일차

주요일정 : 오전-위해시청 도시계획관 방문

오후-적산법화원, 행복문, 선고정

금번 연수의 두번째 방문도시인 위해는 산둥반도의 동쪽에 위치한 도시로 면적의 동쪽방향은 한반도와 아주 가깝다. 주변 바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온화한 계절풍 기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연수 4일차 일정의 시작은 위해시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관을 견학하여 국제화시대에 신형도시화 모델인 청도시의 개발과정 및 도시계획 정책에 대해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위해시는 해양관광도시로써 해양수산물 생산 가공기지 건설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항구 물류기지를 건설하여 컨테이너 부두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일본과 한국에서의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국제항로를 적극적으로 개발 계획 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위해시는 도시의 자연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방지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위생도시이자 조경도시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었다. 그 노력을 시내를 돌면서 한눈에 확인한바 가로수와 함께 많은 나무들을 새로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이루고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많은 쉼터들이 보였다.

넓은 공간에 상업적인 건물을 버리고 쉼터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쉬운 결정이 아닐 뿐 더러 조성을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된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위해시는 해상공원을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조각상과 유원시설과 같은 볼거리와 놀 거리를 함께 조성을 해 지금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공원이 된 것이다.

우리 목포시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들이 많이 있다. 소공원도 조성되어 있고, 노인들을 위한 쉼터도 있다. 그러나 과연 타 지역에서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쉼터, 같이 편하게 놀며 쉴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게 만드는 장소였다.



위해 도시계획관



간담회

위해 광장

오전 기관방문을 마치고 오후에 처음으로 간 곳은 적산법화원으로 산둥반도 적산에 있는 사찰로 통일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에 의해 세워진 사찰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다. 이 사찰은 1년 수확량이 500섬이나 되는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건립된 것으로 장보고는 이를 통해 향후 무역활동을 위한 기반으로 마련하였다고 한다.



다음으로 간 곳은 중국 최고로 많은 옥으로 구성된 명소인 선고정이다. 바다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이웃을 치료하며 공덕을 쌓고 공덕을 가리기 위해 옥으로 사당을 지어 모신 곳이다. 선고정은 입구부터 옥으로 되어 있고, 선고정 안에는 많은 옥으로 조각된 제품들이 있었다.



금번연수의 마지막 코스로 웨이하이의 상징적인 건물인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행복문 공원을 갔다. 행복문도 조립식으로 잘 만들어졌지만 그 주변 바다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사진 찍는 관광객들이 많았다.



□ 4월 28일(일) 연수 5일차 : 출국

4박5일의 짧은 일정동안 견학을 무사히 마치고 출국을 위해 위해 공항으로 이동하였다